

※ 이 콘텐츠는 한국문화원연합회 원천콘텐츠 발굴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 이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인천 배다리 마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인천 마을 산책

인천 동구 배다리마을은 예전에 바닷물이 들어와 배와 배를 연결하여 다리를 만들어 건너다녔기에 붙여진 이름이다. 광복 이후 40여 개의 헌책방이 성업한 헌책방 골목이기도 하다. 이곳에 산업도로가 마을 중간을 관통해 지나가려는 국책사업이 시작되었고, 마을주민들의 저항이 시작되었다. 동네 주민에 지역 문화예술단체와 활동가들이 합세해 도시재생이 시작되었고, 결국 산업도로는 지하로 지나가게 되었고, 배다리마을은 큰 위기를 넘겼다.

인천 원도심 중의 한 곳인 동구에 경인전철을 끼고 있는 배다리 마을이 있다. ‘배다리’라는 이름은 예전에 이곳 마을 어귀까지 바닷물이 들어왔는데, 배와 배를 연결하여 다리를 만들어 건너다녔다거나 배를 댈 수 있는 다리가 있어 붙여졌다.

인천 하면 자유공원과 차이나타운(청관)이 유명한데, 이곳이 일본과 청나라를 비롯한 외국 세력들의 침략과 침탈의 역사가 깃든 신중심지였다면, 배다리는 그곳에서 밀려나거나 쫓겨난 조선인들과, 주변부에 들어선 공장에 일자리를 찾아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노동자들, 한국전쟁 이후 황해도 등지에서 내려온 피난민들이 뒤섞여 어려운 시절을 이겨온 고달픈 삶의 역사가 있는 곳이다. 나라의 위기와 삶의 힘겨움을 교육으로 극복하고 도와주기 위한 지식인들의 활동이 활발했던 곳이기도 하다.

광복을 맞이하며 시작된 헌책방은 한국전쟁 이후 거리를 형성하며 한 때 40여 개가 들어서 성업을 이룰 정도로 유명한 곳이기도 하다. 이렇듯 배다리는 “인천 역사 문화의 모태”라고 말할 정도로 개항 이후 근대 종교와 교육, 산업, 노동, 교통, 상업의 시발지였고 중심지였다.

그러나 이곳도 곳곳에서 드러나는 도시 변화의 한 현상인 ‘원도심 쇠퇴’라는 직격탄을 피하지 못했다. 도시가 확장되고 중심이 신도시로 옮겨가면서 배다리 마을 또한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지고 기억에서 멀어졌다. 그러던 이 마을이 다시 주목을 받게 된 이유는 마을 중간을 관통하는 산업도로 공사 때문이었다. 인천시가 국책사업으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었던 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 중 남쪽의 송도신도시와 북쪽의 청라신도시를 오가는 가장 빠른 길을 내려다 이곳 배다리 마을 주택가 한 복판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동네가 하루아침에 절단이 났고, 그렇게 파헤쳐진 마을의 모습은 폐허 그 자체였다. 오로지 속도와 효율, 이익만을 생각한 결과, 마을 하나쯤 없어져도 괜찮다는 생각이 그런 폐허를 만들었다.

이 도로가 지나가게 되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될 주민들이 먼저 나서서 반대를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곳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었던 지역의 시민문화예술단체와 활동가들이 동참했다. 특히 일부 문화예술단체와 공간들은 아예 이곳으로 동지를 옮겨왔다. 그러던 중 이 일대를 전면 철거하려는 대규모 개발 계획이 수립되어 었친 데 덮친 격이 되었다.



배다리마을 재생공간

주민들과 활동가들은 반대 싸움을 하면서 더불어 ‘배다리 역사문화마을 만들기’ 사업도 함께 했다. 지나온 삶의 가치와 정신을 오늘의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하고 접목시키고자 하는 노력이었다. 오래되어 방치된 건물을 부수지 않고 매입하거나 임대하여 옛 흔적과 사연을 잘 살려 매력 있게 변신시키는 개보수 작업과 더불어 이를 문화와 공동체 공간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한국전쟁 후 지은 건물 다락방의 오래된 벽돌벽 위에 새 벽돌을 쌓아 천정을 높인 후 시집 전시실로 꾸며 매달 시낭송회 등을 개최해 온 아벨전시관, 막걸리를 만들던 옛 양조장 건물을 임대, 개보수하여 문화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스페이스 빔, 옛 조흥상회 건물을 되살린 배다리 생활문화공간 ‘달이네’와 독립서점 ‘나비날다’, 이 외에도 카페 ‘싸리재’, 잇다 스페이스, 20세기약방 등이 만들어지고 있다.

더불어 마을과 도시의 대안을 고민하고 논의하고 실험하는 활동들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예술가 거주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통해 배다리 마을과 원도심 일대의 역사 문화 가치를 재조명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배다리 도시학교'를 통해 지역의 도시 현안과 이슈에 대한 문제의식과 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가능성을 타진했다. 하나의 가게를 여러 주인들이 요일별로 번갈아 사용하며 서로의 관심사와 재주, 수익을 나누는 '요일가게'는 공유경제의 작지만 모범적인 사례다.

무엇보다도 공사를 중단시키고 주민들의 품으로 온전히 돌려받기 위한 관점에서 산업도로 부지의 생태 숲 복원, 텃밭 가꾸기, 여름생태캠프 개최, 마을공동체를 위한 정월대보름 달 집태우기 행사, 아이들을 위한 모험놀이터 조성 등은 이곳을 매연과 소음을 발생시키며 주민 피해만 끼치는 도로가 아닌. 생명과 생태,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곳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이러한 싸움과 활동의 결과, 도로부지는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하로 지나가게 되었고, 지상 부지는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꾸밀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개발 계획은 무산되어 이곳 주민들이 원하는 기반시설 개선과 편의시설 확충 등의 사업을 벌여 이제 배다리는 큰 위기를 넘겼다. 이렇듯 배다리는 위기를 넘기고 노력해온 보람을 느끼나 싶었는데, 현재는 또 다른 위기와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인천시 동구가 배다리를 관광지로 꾸미기 위해 구역을 나누고, 테마거리를 만들고, 조형물을 이곳저곳에 세우려는 계획을 주민들과의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세운 후 밀어붙이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안적인 마을과 도시 만들기를 위해 배다리 마을의 주민과 활동가들은 지혜를 모으고 있다.

집필자

(주)더페이퍼

연관키워드

- [인천광역시](#)
- [배다리](#)

연관tag#

- [#마을](#)
- [#인천](#)
- [#역사공간](#)

초등교과과정연계

· 3학년 ▶ 국어/사회

멀티미디어자료 (1)



인천광역시 > 서구 인천서구문화원

의병장 조헌의 가족이 피난했던 인천 울도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울도(栗島)는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켜 승병 영규 등과 함께 금산전투에서 전사한 후율(後栗) 조헌(趙憲, 1544~1592)의 호를 따서 지은 이름이다. 조헌은 이율곡을 좋아해서 후

율이란 호를 썼다고 하며, 임진왜란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몸종을 시켜 울도에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해서 가족과 몸종의 처가를 피신시켰다고 한다. 이 때문에 이 섬을 울도라 이름 지었다.

인천 지역의 지명유래

- #역사적 인물#인천지명유래



인천광역시 > 연수구 인천시문화원 연합회

사신 가는 입을 세 번 부르던 고개, 인천 삼호현

인천시 남구 판교동 삼호현(三呼峴)은 옛날 백제 시대 중국에 사신으로 가는 입을 세 번 불렀던 고개라는 지명이다. 이 고개에 여신선이 기거하고 있었는데 어떤 중이 이 고개를 넘

다가 술을 먹고 싶다고 얘기하자 신선이 나타나 술을 주고 사라졌다는 이야기도 남아 있다.

인천 지역의 지명유래

- #연이#인천지명유래